

웅진케미칼, 영업이익 26% 감소

2/4분기 매출 2602억원으로 증가 ... 2011년 매출 1조원 넘어설 것

웅진케미칼은 2011년 2/4분기 영업이익이 13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.9% 감소했다고 7월27일 공시했다. 매출액은 260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.5%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86억원으로 33.5% 줄었다.

웅진케미칼은 “국내는 물론 미국, 이란, 중국에서의 글로벌 마케팅활동을 강화한 결과 필터제품의 판매 증가로 매출액이 증가했다”며 “건축용 내장재, 광고인쇄용 제품 등 소재사업부문도 지속적인 호조를 보이고 있다”고 강조했다.

또 하반기에는 섬유사업 부문에서 고부가가치 기능성제품 개발과 차별화제품 위주의 영업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, 신소재 유망사업 등을 통해 2011년 매출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. <저작권지(c)연합뉴스 무단전재-재배포금지>

<화학저널 2011/07/27>